

동화를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의  
서사 변용에 대한 연구  
-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푼젤>을 중심으로

- I. 서론
  - II. 동화의 서사 변용
  - III. 애니메이션의 인물 변용
  - IV.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김은성 이영수\* 강지영\*

초 록

원형서사를 활용하여 플롯을 변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에 맞게 변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어디에 핵심을 두느냐에 따라 서사가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푼젤>은 과거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가졌던 특정한 연령층과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고전 동화가 지닌 서사성을 극복하고 현대적인 서사로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라푼젤>이 원형서사인 동화를 어떻게 변용하여 현대적으로 재창작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블라디미르 프로프의 민담형태론 칼 구스타프 융의 콤플렉스, 그림자 이론을 중심으로 <라푼젤>이 지니는 현대적 변용 요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형서사로서 동화가 지닌 구조와 기능들이 현대 서사로서 작용할 수 있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고 또한 그 특징은 인물에게 부여하여 재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동화, 디즈니, 원형서사, <라푼젤>, 변용

## I. 서론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안티디즈니라는 말이 있을 만큼 세계관과 문화 소비 양식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 헨리지루라는 미국의 문화평론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왜곡된 성 정체성을 디즈니 프린세스를 예시로 들기도 했다.<sup>1)</sup> 또한 2004년 이후 개봉된 6개의 영화에서도 <볼트>를 제외하고 평점 8점을 넘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다.<sup>2)</sup> 그러나 2010년 이후 <라푼젤>과 <겨울왕국>을 개봉하면서 이러한 디즈니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고 있다. <라푼젤>은 미국에서 2010년에 개봉, 우리나라에 2011년 2월에 개봉한 50번째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디즈니 최초 3D 제작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다. 상영 당시 해리포터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제치고 박스오피스를 점령하는 등 많은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골든 글로브 최우수 애니메이션 상, 최우수 주제가 상에 노미네이트 되는 등 좋은 평가 또한 얻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을 당시 금주 개봉작 중 가장 높은 예매율을 보였으며, 우리나라 기준 평점 8.74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sup>3)</sup> 라푼젤이 5억 9,200만 달러를 벌어들인 후 디즈니는 <겨울 왕국>을 내놓았는데, 2014년 중국을 포함한 주요 시장의 개봉을 앞두기도 전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7억1,23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말 그대로 열풍을 일으킨 바 있다. 여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점은 <라푼젤>과 <겨울왕국>이 디즈니 프린세스 시리즈가 갖는 동화의 변용을 통해 디즈니가 갖던 색을 잃지 않으면서 안티디즈니에서 지적되던 여성상을 극복하고 현대적인 여성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sup>4)</sup>

- 
- 1) 최정선, 디즈니의 이중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영상미디어학, 2007, p171-172
  - 2) [분석] <라푼젤> 100만 관객, 관객 평점에 달렸다,  
[http://www.daehancinema.co.kr/movieinfo/mi\\_movie\\_news.asp?id=MI0091669049&rnum=36&mname=&m\\_id=&mi\\_type=03](http://www.daehancinema.co.kr/movieinfo/mi_movie_news.asp?id=MI0091669049&rnum=36&mname=&m_id=&mi_type=03), 맥스 뉴스, 2011
  - 3) 맥스무비 영화 평점 2016년 7월 참고.
  - 4) 뮤지컬 애니 '겨울왕국', 디즈니 역대 최고수익 올렸다,  
<http://kr.wsj.com/posts/2014/01/15/%EB%AE%A4%EC%A7%80%EC%BB%AC-%EC%95%A0%EB%8B%88-%EA%B2%A8%EC%9A%B8%EC%99%95%EA%B5%AD-%EB%94%94%EC%A6%88%EB%8B%>

원형서사는 인류의 역사 상 수많은 이야기가 탄생하고 소멸되어지는 과정 안에서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서사를 말한다. 따라서 민족적 가치, 보편성을 지닌 원형서사를 원작으로 사용하여 적절한 변용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은 ‘백설공주’, ‘인어공주’ 등을 차용한 성공한 디즈니 프린세스 시리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이렇듯 디즈니 프린세스 시리즈의 부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라퐁젤>이 어떻게 서사 변용을 이뤘는지 살펴보는 것은 원형 서사를 서사 작품에 활용하는 방식에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서사 변용에 현대인들이 왜 애니메이션 <라퐁젤>이 가진 서사에 감동을 얻었는지, 어떤 서사의 변용과 캐릭터의 변화가 이를 이끌어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화의 어떤 서사 구조의 활용 방식을 가지고 왔으며, 어떻게 변용시켜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한다.

기존에도 원작 동화를 가진 애니메이션을 비교한 다양한 비교 연구들이 있다. 동화와 애니메이션의 서사적 층위를 비교하고 차이를 찾아 그 의미를 분석<sup>5)</sup>하거나, 두 매체의 전달 방법에 따른 변화로 시공간적 의미를 해석<sup>6)</sup>하고, 더 나아가 매체적 특징에 따라 달라지는 서사적 변용을 분석<sup>7)</sup>하였다. 또 동화의 변용된 작품을 기호학적, 형태론으로 접근<sup>8)</sup>하여 내러티브와 영상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동화를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라퐁젤>을 통하여 변용된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현대성을 띠는지에 대한 관점,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먼저 동화와 애니메이션의 서사의 기능을 블라디미르 프로

---

88-%EC%97%AD%EB%8C%80-%EC%B5%9C%EB%8C%80%EC%88%98%EC%9D%B5%EC%9E%91/, 월 스트리트저널, 2014

- 5) 이종호, 「동화와 각색 애니메이션의 서사학적 비교 연구- <마당을 나온 암탉>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56집, 2012, p35-96
- 6) 정혜원, 「시공간의 확대와 해체의 의미 -동화 『오세암』과 애니메이션 <오세암>을 중심으로」, 스토리 &이미지텔링 제3집, 2012,p107-126
- 7) 박성철, 「정채봉 동화 『오세암』과 애니메이션 <오세암> 비교 연구」, 어문학교육 제38집, 2009,p72-89
- 8) 이영현,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의 기호학적 비교분석 - 프로프와 그레마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2013 ,p79-97

프의 민담 형태론에 따라 분석하여 어떤 구조를 차용하고 있는지 보고 변용된 요소가 애니메이션의 서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찾아보기로 한다.

## Ⅱ. 서사 구조의 변용

### 1. 동화와 애니메이션의 서사 기능

민담형태론은 식물학의 ‘형태론’에서 비롯된 구성과 상호간의 관계, 전체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된 연구이다. 서사의 배열이 유기체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민담 안에서 형태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관점이다.<sup>9)</sup> 여기서 말하는 ‘민담’이란 보다 정확히는 ‘옛날이야기’이며 그 중에서도 ‘마법담’에 관해 중점적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말로 ‘동화, 마법담, 요술담, 환상담’으로 번역될 수 있다.<sup>10)</sup> 원형서사를 서사 작품에 활용하는 방식은 원형 서사의 구조를 가지고 오거나, 인물이나 이미지를 차용하여 구조를 재창작하는 방식이 있다.<sup>11)</sup> 따라서 프로프가 정리한 민담의 서사 배열 구조를 참고하여 원작 동화가 지니고 있는 서사 단락의 유기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애니메이션의 서사와 비교하는 것이 어떤 활용의 방식을 가지고 재창작하였는지, 기능적 요소들의 역할을 어떻게 배치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프로프가 정리한 31가지 유형의 배열<sup>12)</sup> 중에 동화와 애니메이션의 서사 단락에 해당하는 서사의 기능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

9) 블라디미르 프로프, 『민담형태론』, 새문사, 2007, p5

10) 송윤미, 「《玄怪錄》 서사 구조의 순차적 분석 - 프롭(V. Propp)의 《민담 형태론》과 대비하여」, 중국소설논총, 2001, p21

11) 방현석, 『이야기를 구성하는 서사 패턴 959』, 도서출판 아시아, 2013, p283~284

12) 블라디미르 프로프, 앞의 책, p39~82

| 순서 | 동화   | 애니메이션   | 서사<br>기능         |
|----|--|---|------------------|
| 1  | 오래도록 아이가 없던<br>부부                                | 오래도록 아이가 없던<br>코로나 왕국의 왕비가<br>임신을 하게 된다.                                      | a <sup>7</sup>   |
| 2  | 아이를 임신한 아내<br>아내가 마녀가 키우는<br>라퐁젤(양배추)을 먹고<br>싫어함 | 아이를 낳던 중 왕비가<br>위독하게 되자 백성들이<br>마법의 꽃을 구해온다.                                  | a <sup>5</sup>   |
| 3  | -  | 마법의 꽃을 달여 먹어<br>왕비가 건강을 차리고<br>라퐁젤을 낳게 된다.                                    | F <sup>7</sup>   |
| 4  | 라퐁젤을 마녀에 밭에서<br>훔치다 걸린다.                         | -   | δ                |
| 5  | 남편은 대가로 아이를<br>마녀에게 준다.                          | 마법의 꽃으로 젊음을<br>유지하던 마녀 고델은<br>라퐁젤을 납치한다.                                      | A <sup>1</sup>   |
| 6  | -  | 왕과 왕비는 매해 아이의<br>생일에 등을 날리며<br>라퐁젤이 돌아오길<br>기원한다.                             | -                |
| 7  | 마녀는 라퐁젤의 머리를<br>사용해 탑을 이용한다.                     | 고델은 라퐁젤의 엄마<br>행세를 하며 라퐁젤의<br>머리카락으로 탑을 오르며,<br>마법의 힘으로 젊음을<br>유지한다.          | -                |
| 8  | 아이는 숲 속의 탑에 갇혀<br>자람                             | 탑에 갇혀 18세가 된<br>라퐁젤은 자신의 생일마다<br>보던 등을 직접 보길<br>원하지만 고델은 라퐁젤을<br>숨기기 위해 거절한다. | A <sup>1 5</sup> |
| 9  | 숲을 지나던 왕자는<br>라퐁젤의 노랫소리에 탑을<br>발견한다.             | 코로나 왕국의 보물인<br>공주의 왕관을 훔쳐<br>달아나던 플린은 라퐁젤의<br>탑으로 숨어든다.                       | -                |
| 10 | -  | 라퐁젤은 생일 선물을<br>핑계로 고델을 멀리 보내고<br>왕관을 빌미로 플린과 함께<br>밖으로 나간다.                   | ↑                |

|    |                                   |  |                |
|----|-----------------------------------|--|----------------|
| 11 | 사랑에 빠진 왕자와<br>라퐁젤                 | 플린을 따라간 라퐁젤은<br>주점에서 강도들을 만나고<br>친구가 된다. 주점에<br>들어닥친 경찰병들을 피해<br>플린과 라퐁젤은 도망친다.<br>탈출을 하는 동안 다친<br>플린의 상처를 치료하기<br>위해 라퐁젤은 자신의<br>비밀을 알려준다. 플린도<br>라퐁젤에게 마음을 열고<br>자신의 원래 이름(유진)을<br>밝힌다. 생일이 되고 하늘을<br>수놓던 등불을 보며 둘은<br>점차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 -              |
| 12 | 마녀가 라퐁젤의 머리를<br>잘라 왕자가 탑에서<br>떨어짐 | 고델이 라퐁젤의 탈출을<br>알고 계략을 꾸며 둘 사이를<br>갈라놓는다.  | -              |
| 13 | -                                 | 다시 탑으로 돌아온<br>라퐁젤은 자신이 코로나<br>왕국의 공주라는 사실<br>깨닫는다.   | Q, Ex          |
| 14 | 시력을 잃고 라퐁젤과<br>헤어진 왕자             | 경찰병들에게 붙잡힌 플린은<br>강도와 막시무스의 도움으로<br>감옥을 탈출하지만 고델에<br>의해 죽을 위기에 처한다.  | A <sup>6</sup> |
| 15 | -                                 | 라퐁젤은 플린을 치유하게<br>해주면 영원히 탑을 떠나지<br>않겠다 약속하고 플린은<br>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며<br>마법의 힘을 지닌 라퐁젤의<br>머리를 자른다.  | -              |
| 16 | -                                 | 마법의 힘으로 젊음을<br>유지하던 고델은 머리카락이<br>잘리자 채로 변한다.   | I <sup>6</sup> |
| 17 | 라퐁젤의 눈물로 왕자가<br>시력을 되찾음           | 플린은 죽어가고 라퐁젤은<br>플린을 끌어 안고 눈물을<br>흘린다. 라퐁젤의 눈물이<br>플린에게 떨어지자 상처가   | K              |

|    |                   |                               |   |
|----|-------------------|-------------------------------|---|
|    |                   | 회복된다.                         |   |
| 18 | 나라로 돌아가 행복하게<br>삶 | 라퐁젤은 플린과 왕국으로<br>돌아가 행복하게 산다. | W |

표 1. 라퐁젤 동화와 애니메이션의 서사 기능

- 1) 결여 (a.) :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어떤 것을 결여하고 있거나 갖기를 원한다.
- 2) 위반 (δ.) : 금지의 위반
- 3) 주술적 작용물의 준비나 수령 (F.) : 주인공이 주술적 작용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4) 가해 (A.) : 악한이 가족 중의 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입힌다.
- 5) 출발 (↑.) : 주인공이 집을 떠난다.
- 6) 인지 (Q.) : 주인공이 인지된다.
- 7) 폭로 (Ex.) : 가짜 주인공 혹은 악한의 정체가 폭로된다.
- 8) (K.) : 최초의 불행이나 결여가 해소된다.
- 9) 승리 (I.) : 악한이 퇴치된다.
- 10) 결혼(W) : 주인공은 결혼하고 왕좌에 오른다.

동화 『라퐁젤』은 그림형제의 동화집에 수록된 독일의 고전이다. 다양한 이본들이 존재하지만, 그림형제의 동화집에 수록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서사 구조인 『라퐁젤』은 선형적인 플롯으로 이루어져 있다.<sup>13)</sup> 『라퐁젤』의 서사를 서사기능으로 살펴보면, 발단과 전개 과정에서 금지, 위반이 나타난다. 하지만 그 이후의 서사에서는 주인공이 위반 이후의 문제 해결 과정이 주된 서사를 이끌고 있지 않다. 오히려 왕자가 등장하고 능동적인 인물이 모험을 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라퐁젤이 탄생하고 탐에 간히는 사건들이 마치 프롤로그처럼 과거의 시점으로 진행되고 왕자의 등장으로 현재로 넘어오는 독특한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동화 『라퐁젤』은

13) wikipedia, <http://wikipedia.org>, 검색어 : 라퐁젤.

처음에 등장하는 금기의 위반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가 아닌, 왕자와 라퐁젤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더 자세히 표에서 살펴보면 민담형태론의 분석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7번 라퐁젤의 머리카락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설정과 9번, 12번의 라퐁젤과 왕자의 사랑 부분인데, 여기서 『라퐁젤』 동화가 현대에 활용할 수 있는 서사로서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긴 머리카락’의 설정은 독특한 캐릭터성을 부여하기 적합하다. 또한, 문제 해결의 요소인 ‘사랑’이라는 감성은 온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따라서 ‘사랑’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서사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변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애니메이션도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동화와 같이 결여-유괴-상해-해소-결혼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서사는 모두 아이가 없던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동화는 금지-위반의 결과로 아이가 납치되는 반면, 애니메이션은 ‘마법의 힘(치유와 회복의 능력)’ 때문에 라퐁젤이 유괴가 되는 차이를 보인다. 기능적으로 본다면 동화에서 갖지 않은 주술적 작용물의 준비나 수령(F.) 기능이 추가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애니메이션은 결말의 부분에서는 동화의 서사 기능과 똑같이 끝이 난다. 그러나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는 15, 16번을 통해 남자주인공이 마녀에 의해 상해를 입는 서사에서 라퐁젤이 지닌 능력이 상실됨으로써 고델을 퇴치하는 서사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진을 살리기 위해 고델에게 이용당하려 하는 라퐁젤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유진의 행위는 두 인물의 사랑을 보다 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다시 동화와 공통적으로 라퐁젤이 흘리는 눈물로 인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된다. 결말의 기능은 공통적이지만 추가된 내용을 통해 애니메이션은 다른 가치관을 보여준다. 기존의 나라로 돌아가 왕자와 결혼을 하는 엔딩에서 결혼이 아닌 두 사람의 ‘사랑’에 초점이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혼이 지니는 해피엔딩으로서의 기능이 현대와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서사의 줄거리의 양이 길어졌지만 동화와 애니메이션의 발단과 전개, 문제가 해결되는 절정과 결말의 흐름이 유사하다. 위표에서 애니메이션의 기능 구조를 살펴보면 둘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따라서 원형서사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애니메이션은 동화의 서사적 특징과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형서사를 활용하여 플롯을 변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에 맞게 변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구조더라도 어디에 핵심을 두느냐에 따라 서사가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다. 약 1시간 40분 정도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서사는 납치된 라퐼젤이 진짜 부모님을 찾아가는 이야기이지만, 탑에서 나오기, 꿈 이루기, 사랑 찾기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결말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애니메이션 <라퐼젤>은 원형 동화가 가지는 서사구조를 바운드 모티프로 그대로 활용하고 프리 모티브들을 추가하는 변용 거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애니메이션과 동화의 서사의 시작과 문제의 해결은 공통으로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동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전달하고 있는 주제와 표현 방식은 분명 다르다. 납치, 치유의 근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마법의 힘’ 이 라퐼젤의 머리를 사다리 대신 사용한다는 동화의 상상력에 더해져 라퐼젤이 지니는 긴 머리에 대한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등장인물들의 지위가 바뀌었음(부부-왕과 왕비, 왕자-도둑, 라퐼젤-공주)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정들은 동화가 가진 우연한 사건의 전개에 개연성을 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변화로 보인다.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는 기능적으로 부여된 속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성 그 자체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특징을 지닌다. 다시 말해 캐릭터가 이야기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성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에서 새롭게 부여된 캐릭터성을 살펴보는

것은 서사 변용을 살펴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머리카락의 능력의 확장, 인물 간 위치의 변화가 어떻게 캐릭터로 부여 되었는지, 더 나아가 어떤 방식으로 주제와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퐁젤>이 갖는 현대 서사로의 변용의 의의를 더욱 자세히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 Ⅲ. 애니메이션의 인물 변용

애니메이션 <라퐁젤>은 경계하던 두 남녀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시련을 극복하고 본래 모습을 찾아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기존의 공주 이야기의 답습을 버리고 개성 있는 캐릭터로 성격을 부여받아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캐릭터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한계를 벗어 성숙된 자아로 발전해나가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융의 정신분석학 그 중에서도 ‘콤플렉스’와 ‘그림자’ 이론으로 해석하여 미성숙한 자아가 어떻게 변화하여 성장해나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적인 서사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분석하도록 한다.

#### 1. 머리카락의 능력 확장과 라퐁젤의 콤플렉스

동화에서의 라퐁젤의 머리카락이 긴 탑의 ‘사다리’와 같은 역할’ 이었다면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를 포함, 성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확장 되었다. 이는 라퐁젤이 갖는 정체성인 긴 머리에 대한 개연성은 물론, 서사의 갈등과 해결에 대한 이유가 되어, 보다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고전의 영웅들과 다르게 신성시 되는 능력이 오히려 인물의 콤플렉스가 되고 이를 극복, 제거, 수용하게 되는 극적인

---

14) 공현희, 스펀오프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캐릭터의 변화 분석,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통권 제 41호, 2015, p110

서사는 하나로 정의 할 수 없는 현대의 파편화된 개인들의 성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다가온다. 정리하자면, 라퐁젤의 확장된 머리카락의 능력은 서사 진행에 개연성과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입체적인 인물로 변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와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개인의 내적 갈등과 해결에 초점을 두는, 보다 현대적인 서사로 변용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라퐁젤은 이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 즉 주된 바운드 모티프를 이끄는 프로타고니스트로서 자아를 형성하여 성장하는 과정의 서사를 이끌어간다. 융은 과거의 경험들이 사람의 의식, 무의식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자아 형성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융의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자아를 형성하고 무의식을 의식화 하며 그 과정에서 자아의 성숙을 통해 개성화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경험이란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이를 특정 대상에 대한 콤플렉스와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다. 융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특별한 감정을 콤플렉스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융의 시각에서 볼 때 <라퐁젤>의 서사는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개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에서 서사가 라퐁젤이 머리카락에 마법의 힘을 부여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이유를, 개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서사로 변용되기 위해 부여받은 속성, ‘긴 머리카락’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애니메이션의 변용된 서사에서 라퐁젤의 정체성이자 누구나 탐내는 ‘긴 머리카락’이 주인공의 성장을 막는 한계로 작용하고 이를 극복하는 내용으로 변용된 것이다.

라퐁젤은 부모 콤플렉스 그 중에서도 특히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를 가진 인물로 설정되었다. 어린 아이는 엄마라는 존재를 통해 인격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받는다. 라퐁젤은 자신이 가진 마법의 힘을 통해 영원한 젊음을 얻길 소망하는, 자신을 납치한 여자를 엄마로 알고 성장한다. 라퐁젤은 여타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가짜 엄마에게 매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가짜 업

마는 끊임없이 아이의 미성숙함과 자신이 가진 엄마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이의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을 저지한다. 그 결과 라푼젤은 자존감이 낮고 혼자서 결정하고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로 성장한다.

융은 아이가 이러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엄마와의 분화를 겪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15)가장 믿고 의지하는 대상과 유기되는 경험을 통해 아이는 점차 개인적인 의식을 지닌 인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엄마와 분화되는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 즉 콤플렉스의 인식과 의식으로서의 소화가 인격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애니메이션의 서사 안에서 억압적인 교육을 통해, 라푼젤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무의식의 자아는 성장하며 점차 개성화<sup>16)</sup>의 과정으로 나아가길 요구한다. 융은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는 ‘반항’의 감정을 겪게 된다고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엄마가 정해놓은 금기를 어김으로써 극단적인 분화의 과정을 겪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엄마는 불쾌한 감정을 받아 아이와 갈등을 겪게 되고 아이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으로부터 갈등을 빚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애니메이션에서는 라푼젤이 성 밖으로 나와 엄마와의 유기를 경험하고, 엄마의 말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과 자유로움, 자신의 꿈을 찾는 과정 사이에서 느끼는 아이의 내면적 갈등으로 그리고 있다.

---

15) 칼 융. 이유경 옮김 『원형과 무의식-「모성원형의 심리학적 측면」』 숲, p223, 2002

16) 의식의 중심으로서의 자아가 무의식의 중심에 있는 자기에 도달함으로써 본연의 자기를 실현시키는 것. (다음 오픈지식.)



그림1. 탑을 나온 라푼젤의 내적 갈등  
2011 <라푼젤> 32: 15-55

애니메이션에서는 탑 밖으로 나온 라푼젤의 즐거운 모습과 우울해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라푼젤의 내적 갈등을 시각적으로 유쾌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로 그림으로써 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섬세한 감정의 처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기요 지금 아가씨 안에서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게 한 눈에 보이거든요  
 왜 그러는지 감이 잡히긴 해요. 과보호 어머니와, 떠나서는 절대 안 될 여행  
 사실 이건 심각한 일이죠 하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 자라는 과정이다  
 약간의 반항이나 약간의 모험은 좋은 거예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구요 어머니가 걱정할까요? 아니요  
 이번 일로 어머니가 상처를 받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한번은 해야 할 일이에요<sup>17)</sup>

유진이 라푼젤에게 하는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플린-유진은 이러한 라푼젤에게 세상 밖으로 나

17) 2011. <라푼젤> 32: 48-33: 23, 유진 대사

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밖으로 나오겠다는 자신의 의지와 이를 돕는 조력자와의 관계를 통해 라퐼젤은 자아를, 사랑을 찾게 된다.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콤플렉스로 곱친 라퐼젤이 콤플렉스를 해소하고 개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이는 라퐼젤이 아이에서 성숙한 인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인격이 되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를 라퐼젤이 지닌 내재된 영웅성으로 볼 수 있으며 프로타고니스트로서의 성격을 지닌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다.

## 2. 지위의 역전과 유진의 그림자

플린-유진이라는 인물은 기존 디즈니 프린세스에서 나오는 조력자로서 왕자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인물형이다. 앞서 동화와 애니메이션의 서사 비교를 통해 지위가 서로 반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주의 지위를 갖는 라퐼젤과 가난한 고아로 자라 도둑이 된 유진. 두 주인공의 지위의 변화는 서사에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위기에 빠진 여자와 이를 구하는 남자와의 관계를 벗어난 것이다. 왕자라는 지위로 이미 완성된 인격체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유진은 ‘플린라이더’ 라는 동경의 대상을 만들어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있는 캐릭터로 설정되어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러한 인물이 자신의 꿈과 정체성을 찾아 성숙하는 라퐼젤을 만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유진은 라퐼젤의 무의식을 의식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나약한 존재에서 성숙하게 된다. 이는 왕자와 탑에 갇힌 미녀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하는 도둑과 공주라는 지위의 역전을 통해 보다 현대적인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진은 라퐼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인물로, 라퐼젤이 생각하던 탑 밖에 자신을 헤칠지도 모르는 나쁜 사람의 유형이며

처음 라퐁젤이 만난 탑 밖의 사람이다. 라퐁젤은 유진에게 훔친 왕관을 빌미로 자신의 꿈인 등을 보고 올 때까지 보호자의 역할을 요구한다. 유진은 라퐁젤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지만 겁을 주어 다시 돌아가게끔 하려한다. 그러나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일어난 안 좋은 사건들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돕고, 이해하는 라퐁젤에게 점차 마음을 열게 된다. 이는 라퐁젤을 탑으로 돌려보내려하던 자신을 믿어주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머리카락의 비밀을 털어놓은 라퐁젤을 통해 마음을 연 유진이 ‘플린’이라는 이름 속에 숨겨버린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림2. 라퐁젤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유진

2011. <라퐁젤> 55: 37

이어서 유진은 라퐁젤에게 자신의 원래 이름과 가난한 고아임을 털어놓는다.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숨기던 인물이 자신을 위해 비밀을 털어놓고, 또한 자신을 믿어주는 라퐁젤을 통해 변화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자신의 진짜 이름을 소중히 여겨주는 라퐁젤에게 점차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후 유진은 라퐁젤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한다.

용의 그림자 이론에서 그림자는 인간의 내면에 억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그림자는 반사회적인 것이기도 하기에 철저히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를 너무 억압하면 인간의 창조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그림자는 통제되어야 하기에 오히려 인간의 본연의 사고이기도 하다. 유진은 자신의 내면의 ‘가난한 고아’ 라는 콤플렉스를 지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그림자를 만들어 낸다. 오히려 다른 이들이 억압하고 통제하는 반사회적인 것들을 의식화하여 상처 받고,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그림자로 억제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유진은 아무도 자신을 판단할 수 없도록 자신의 자아를 숨기고 ‘플린 라이더’ 라는 가면, 자신이 원하는 페르소나를 투사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라퐼젤의 캐릭터와 같이 콤플렉스의 의식화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진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알고, 내면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유진의 캐릭터성은 콤플렉스가 만들어낸 부정적인 ‘그림자’ 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 3. 사랑을 통한 콤플렉스와 그림자의 극복

머리카락의 능력의 확장과 지위의 변화를 통해 애니메이션 속에서 새로운 인물로 변화된 두 주인공은 각자의 자아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사랑’ 이라는 감정을 나누며 만남을 통한 성숙을 보여주고 있다. 두 인물의 성숙을 통한 자아와 꿈의 실현은 애니메이션에서 전달하고자하는 바를 잘 타나낸다.

두 인물의 만남은 라퐼젤이 모성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발점을 마련하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그 과정을 함께 겪으며 유진은 라퐼젤과 사랑에 빠지게 되며 자신의 뒤를쫓던 그림자를 바로잡고 ‘라퐼젤이라는 꿈’<sup>18)</sup>을 꾸게 된다. 이 두 인물은 서로를 만나 상호작용하며 다른 의미의 조력자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남자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여자 주인공을 구하는 힘의 원리가 아닌 서로를 돕고 시련을 극복하는 인물

18) 2011. <라퐼젤> ,1:25:50 유진(라퐼젤에게) : “당신은 내 꿈이었어요.”



들의 관계는 라푼젤이 지닌 영웅성의 증명은 물론 각 주인공들이 서로를 만나 영향을 주고 성장하는, 세계와 인물간의 갈등이 아닌 인물 내면의 갈등과 해소에 초점이 맞춰진 현대적인 ‘성장’의 스토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라푼젤은 문제해결에 있어 무서워 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닌 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개성화의 과정으로, 더 나아가 자신의 본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개인으로 성장해간다. 그리고 이를 돕는 것이 바로 유진의 ‘사랑’이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진이 라푼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기존 동화에 없던 추가된 서사이다. 이는 중세 시대의 주인공들이 가지는 신성시 되는 능력을 벗어나 인간의 영역으로 온전히 들어오는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푼젤이 지닌 마법의 힘은 신성시 되는 능력이지만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든 한계였다. 이러한 마법의 힘인 머리카락의 상실은 머리카락이 없이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성숙된 자아로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머리카락의 상실은, 능력 때문이 아닌 라푼젤이 지닌 자아 그 자체로 사랑 받기에 충분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유진의 사랑은 마치 금발의 머리가 없으면 자신의 존재마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던 라푼젤을 자신이 원하는, 주체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처럼 머리카락의 확장과 지위의 변화를 통해 라푼젤과 유진은 탐에 갇힌 미녀, 미녀를 구하는 왕자를 벗어나 개성 있는 캐릭터성을 부여받았다. 그 결과 두 인물들이 지닌 콤플렉스와 그림자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고 꿈을 찾는, 서사로서 변화하게 되었다.

#### IV. 결론

라푼젤은 동화의 긴 금발의 성에 갇힌 여자와 이를 구하는 왕

자의 러브스토리의 구조를 진정한 자아를 찾고 꿈을 찾는 개인으로서의 가치를 담은 이야기로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러한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물들의 갈등과 시련의 극복,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잘 집약시켜 하나의 스토리 안에 녹여내고 있다. 동화 『라퐁젤』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야기 속에서 현대적인 요소를 넣어 변용하여 훌륭한 스토리로 재창작하였다. 동화 속에서 기존의 동화의 서사 기능이 애니메이션에서 적용되어 재창작이 가능했다는 자체로 동화 『라퐁젤』이 지니는 원형서사로서의 의의를 보여준다. 또한 서사 변용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캐릭터성으로 부여되어 애니메이션의 탄탄한 작품성까지 증명하고 있다.

라퐁젤의 지혜에 가까이 있었던 무의식을 의식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은 바로 가짜 엄마 행세를 하던 여자의 억압이었다. 그리고 그 억압을 유진이라는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벗어나 콤플렉스의 극복을 이루게 하였다. 이를 통해 라퐁젤의 콤플렉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여 자아실현으로 나아가게 했다. 라퐁젤이 지닌 메시지는 개성화의 과정에 있는 아이부터 부모와의 분리로 이미 성숙된 자아를 지니고 있는 어른들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온다. 이는 성에서 가두어져 길러진 라퐁젤이 자신을 구해줄 왕자를 만나 행복에 이르는 스토리에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벗어나 꿈을 찾아 도전하고, 특별한 능력이 없이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자신의 성숙을 이뤄내는 현대적인 요소와 가치로 이루어진 이야기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라퐁젤을 통해 우리는 부모의 영향력 아래 억압된,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노력하던 아이가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찾고 성숙된 길로 성장하는 소녀의 모습보고 공감하며, 내면을 숨기고 또 다른 자아로 살던 유진이 자신을 인정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미성숙한 두 사람이 만나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에서 감동을 받게 된다. 애니메이션 <라퐁젤> 에서 관객은 미성숙한 인격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고, 더욱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잘 짜인 하나의 해피엔딩 스토리를 넘

어, 그 과정 자체로 감동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특정한 연령층과 사람들에게만 통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적인 서사로 재창작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의 작품으로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

- 공현희, 스폰오프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캐릭터의 변화 분석,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 41호, 2015, p110
- 김만수, 『스토리텔링 시대의 플롯과 캐릭터, 연극과 인간, 2012.
- 방현석, 『이야기를 구성하는 서사 패턴 959』, 도서출판 아시아, 2013.
- 신근영, 『칼 구스타프 융, 언제나 다시금 새로워지는 삶』, 북드라망, 2012.
- 오진령, 『콩쥐 팥쥐와 모성 콤플렉스 - 융 심리학으로 동화읽기』, 이담북스, 2013.
- 이부영, 『분석심리학 C.G 융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1978.
- 송윤미, 「《玄怪錄》 서사 구조의 순차적 분석 - 프로프(V. Propp)의 《민담형태론》과 대비하여」, 중국소설논총, 2001, p17~47.
- 최정선, 디즈니의 이중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영상미디어학, 2007, p171-172
- Murdock, Maureen ,The Heroine's Journey, 고연수 역, 『여성 영웅의 탄생』 교양인, 1990.
- V. Propp, Morphology of the Folktale, 유영대 역, 『민담 형태론』, 새문사, 2007.
- Carl Gustav Jung. Original and unconscious, 이유경 옮김 『원형과 무의식-「모성원형의 심리학적 측면」』 숲 ,2002.
- 맥스 무비, www.maxmovie.com, 검색어: 라퐁젤, <http://search.maxmovie.com/search/?sword=%EB%9D%BC%ED%91%BC%EC%A0%A4>, 맥스 무비, 2016,
- 구글, www.google.com 검색어: 디즈니 평가, “ 뮤지컬 애니 ‘겨울왕국’ , 디즈니 역대 최고수익 올렸다,” <http://kr.wsj.com/posts/2014/01/15/%EB%AE%A4%EC%A7%80%EC%BB%AC>

-%EC%95%A0%EB%8B%88-%EA%B2%A8%EC%9A%B8%EC%99%95%EA%B5%AD-%EB%94%94%EC%A6%88%EB%8B%88-%EC%97%AD%EB%8C%80-%EC%B5%9C%EB%8C%80%EC%88%98%EC%9D%B5%EC%9E%91/, 월스트리트저널, 2014

다음 오픈지식. www.daum.net 검색어: 개성화.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적 인간학” <http://tip.daum.net/openknow/39264831>,  
wikipedia, <http://wikipedia.org>, 검색어 : 라푼젤.  
<라푼젤>(Tangled, 2011)

## ABSTRACT

### Study on the Transfiguration of Animation's Narratives using Archetypical Narratives -Focused on the Disney's <Tangled>

Kim, Eun-Sung, Lee Young soo, Kang ji young

The transformation of plots using the archetypical narratives is not just a repetition of the past story, but finding a new suitable meaning for present time and society. Due to this, the story can be varied depending on what the transformation has the main point for. Disney's animation <Tangled> overcomes the narrative feature of the past classic fairy tale that worked only for particular age and people, and recognized as a contemporary story that can give impression to more various people.

This study use Vladimir Propp 's Morphology of the Folktale, Carl Gustav Jung's complexes and shadow theory to examine how this animation <Tangled> is modernly recreated by transforming the archetypical narrative.

As a result, we can find characteristics of structure and function for contemporary story, and those also work with characters in the recreated animation. Through this study we discovered that Disney's animation <Tangled> is a transfiguration of archetypical narrative through the exhaustive analysis, and this could be the helpful research for the future creation of animation which uses the archetypical narratives.

Keyword : Fairy tail, Disney, <Tangled>, Archetypical Narrative, Transfiguration

김은성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영화콘텐츠학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축전로 152  
o3o343@naver.com

이영수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영화콘텐츠학과 연구전임조교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축전로 152  
lysoo01@hanmail.net

강지영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영화콘텐츠학과 조교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축전로 152  
artech@dankook.ac.kr

논문투고일 : 2016.08.01.

심사종료일 : 2016.08.26.

게재확정일 : 2016.08.26.